

1분기 가계소비성향 '역대 최저'

지난해 4분기 72.3%대비 0.2%p 하락한 72.1%… 2012년 이래로 하향곡선

가계소득과 지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가계 쓰임새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4분기 (72.3%)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72.1%에 그쳤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05년 80.3%(1분기 기준)에 달했던 가계 소비성향은 2012년 77.1%, 2013년 75.0%, 2014년 6.6%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을 뺀 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것은 가계가 수입에 비해 쓰임새를 더 크게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기구당 명목 월평균 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모두 지난해 4분기(소득 0.9%, 지출 1.7%)에 비해 위축됐다.

또 물가상승 효과를 제외한 실질소득은 실질지출은 각각 0.2%와 0.5%씩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인진수 기자



아트 컬라보 콜렉션 스포츠 전문 의류 브랜드 STL은 가족이 모두 함께 입을 수 있는 래시기드 컬렉션에 맞추어 추성훈 아노 시호, 추사람 기죽을 메인 모델로 잊세운 키스 해링과의 아트 컬라보 콜렉션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래시기드를 입은 추성훈.

쿨비즈룩 대표 패션 아이템은 '티셔츠'

티셔츠가 쿨비즈룩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티셔츠는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스포츠웨어로 어렵지 않아 특히 남성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는 슈트, 캐주얼, 아웃도어 등 브랜드에 상관없이 소재의 변형 등을 통해 냉감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쿨비즈룩의 중심에 서고 있다.

올 여름 쿨비즈룩의 중심에 선 다양한 티셔츠 제품들을 살펴본다.

◇인디안, 구김 적고 청량감 뛰어난 '레시피 시리즈' 출시

라이프스타일 패션 전문점 웰메



도 시원한 착용이 가능하다.

◇빈풀, 업그레이드 된 리넨…딜라이트 라넨 2.0

캐주얼 브랜드 빈풀은 '딜라이트 라넨 2.0' 상품을 출시했다.

딜라이트 라넨 2.0'의 피케 티셔츠는 편직 기술을 통해 조직 패턴에 변형을 준 제품이다.

별집 모양의 균일화된 조직으로 편직해 피부가 예민한 고객들도 부담 없이 착용이 가능하다.

물빨래를 한 이후에도 옷의 상하좌우의 틀이 세탁 전의 상태와 유사할 정도. 리넨과 폴리를 적정 비율로 혼방해 리넨의 단점을 보완했다.

/인진수 기자

이드의 대표 남성복 브랜드인 인디안은 빨리진 여름 시즌을 맞아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민족시키는 레시피 시리즈를 선보였다.

레시피 시리즈는 레이온, 면, 폴리 등 3가지 소재를 최적의 비율로 혼방해 만든 티셔츠다. 웨이드에서 자체 개발한 최적의 비율이 뛰어난 청량감을 제공해 한여름에

LX공사, '드론 코리아' 서 실력 과시

무인항공기 관련 신기술 시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용·복합 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7일 LX공사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고! 드론 2016 코리아'에 참가,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술력을 과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드론 쇼 행사에서 LX공사는 무인항공기 관련 신기술 시연, LX홍보부스 운영, 공유지 모니터링 체계 UAV(무인비행체)영상 플랫폼을 소개한다. 또 제5회 UAV 활용 공간정보 활성화

화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관련 업체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김영표 사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업분야가 국·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정보 보를 선도하는 LX공사도 무인비행

용·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지난해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사업 분야 인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국토조사 대표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3월 전주시와 첫 인전성 검증 시범행사를 마치고 4월에는 전주공역 개소식에 참석해 관련 기술 등을 소개했다. /정영수 기자

유한킴벌리 신제품 가격인상 철회

소비자들 반발 따라

유한킴벌리가 좋은느낌 등 자사의 기준 여성용품 가격을 최고 20%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킴벌리는 그러나 다음달부터 선보일 신제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소비자들 눈치를 의식한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최근 유한킴벌리 측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 10 제품은 16%(1160→1350원),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 20 제품은 14%(2220→2530원) 가격이 인상됐다.

유한킴벌리는 그러나 다음달부터 선보일 신제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소비자들 눈치를 의식한 편법을 쓰고 있다.

여성민우회 한 회원은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계속되는 가격인상은 여성 신체구조상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라

는 점을 기업에서 되려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진수 기자

것으로 확인됐다.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 10 제품은 16%(1160→1350원),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 20 제품은 14%(2220→2530원) 가격이 인상됐다.

유한킴벌리는 가격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24일 해당제품의 가격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회사 측은 꾸준히 제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민우회 한 회원은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계속되는 가격인상은 여성 신체구조상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라

는 점을 기업에서 되려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진수 기자

군산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청약경쟁률 최고 6.74대1

특화된 평면 설계 등 인기… 분양 수요 주춤 예상 깨 '주목'

군산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가 지난 26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6.74대1을 기록하는 등 모든 주택형에서 순위 내 마감됐다.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는 1순위 청약이 실시된 지난 25일 59㎡형 1.98대 1, 84㎡A형 4.92대 1, 106㎡형 6.29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며 일찌감치 순위 내 마감을

뒤집는 결과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로 군산에 첫 선을 보이는 민枢,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특화된 평면 설계 등 한자원 높은 상품력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1일이며 계약은 6월 7~9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견본주택(063-468-3353)으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식약처, 의약품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및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개정)'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약국 등에서 의약품 조제 후 새로운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는 경우 품질을 확보하고 의료현장에서 주사제 조제·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조제 시 위생관리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조제 전에는 손을 씻어 청결해야 하며 조제용 의약품은 가급적 조제 시에만 개봉하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잘 닫아서 보관해야 한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동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국번없이
1577-1295

